

젠더 정체성과 페르소나로 수행된 패션 디자인 특성 연구
- Judith Butler의 수행성 이론과 Jung의 Archetype 을 중심으로-

Study of Gender Identity and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Performed
with Persona

-Focused on Judith Butler's Gender Performativity and Jung's
Archetype Theory-

주저자

김향자 Kim, Hyangja

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연구원 | Researcher, Institute of Ecology for Elderly, Pusan National University
aesthetics88@naver.com

투고일	2018.11.22	심사일	2019.01.22	게재확정일	2019.01.27
-----	------------	-----	------------	-------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6R1D1A1B03934943).

목 차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배경
-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배경

- 2.1.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수행성 이론
- 2.2. 젠더 정체성과 패션스타일
- 2.3. 융(C.G. Jung)의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

3. 영화 속 패션 스타일의 젠더 정체성 분석

- 3.1. 모방성; 패러디적 정체성
- 3.2. 행위의 반복; 수행적 정체성
- 3.3. 합체; 우울증적 정체성

4. 트랜스젠더 패션 스타일의 젠더 상징성

- 4.1. 패러디적 실천으로서 Cross-dresser
- 4.2. 아니마 전환의 매개장치로서 Trans-gender
- 4.3. 완전한 페르소나로 전환된 Trans-sexual

5. 결론

참고문헌

keyword

대니쉬걸, 젠더 정체성, 패션스타일, 융의 원형 이론, 크로스 드레싱 The Danish girl, Gender Identity, Fashion style, Jung's Archetype, Cross-dressing

Abstract

Fashion is a communicator who expresses the identity of the self and is a clear text about the socio-cultural era. This study analyzed the expressions and symbolism of sexual transformation in detail to discuss aspects of sexual performance expressed through fashion styles. We analyzed the fashion represented in transsexual transsexual process by applying the inherent symbolism of identity transition through Judith Butler 's sexual identity theory and C.G. Jung' s prototype theory (Anima / Animus).

Sexual identity expressed through fashion style is expressed as imitation (parody identity), action repetition (performance identity) and cohesiveness (depression identity). Implicit symbolism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definition prototype theory to the internal values of sexual identity through sex change

논문요약

패션스타일은 젠더 전환 과정을 표현하는 시각적 장치이자,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명시적 텍스트이다. 연구대상은 세계적인 작품성을 인정받은 원작 영화 <The Danish Girl, 2015>이며, 문헌 연구와 작품 연구로 진행하였다. 젠더 전환 과정의 연구 분석들은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내적 의미는 융의 원형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패러디적 실천인 Cross-dresser는 퍼포먼스적 반복행위로서 유희적 자아와 타자를 전복시키고 젠더의 재배치를 유도하는 장치이다. 둘째, 아니마 전환 매개장치로서 Trans-gender는 의식적 반복적 복장 전환으로 남성 페르소나가 아니마인 여성으로 심리적 동일시되어 젠더 변환의 계기를 마련한다. 셋째, 완전한 페르소나로 전환된 Trans-sexual은 성 전환 수술을 통해 새로운 젠더로 재생산된 이들이 정상적 심리와 자아실현을 완성하고 자신의 정신세계에 적합한 외적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한다. 패션 스타일은 양식화된 젠더의 반복적 수행 표현이며, 영화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을 수행하는 매개물이며 문화적 장치가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영화 미장센인 패션스타일의 중요성과 영상 전문 인력들의 패션 교과목 참여도를 높여 문화 감수성의 질적 향상과 시각화 향상 등 교육적 측면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 섹슈얼의 젠더 정체성이 변환되는 과정을 시각 도상으로 표현하는 패션스타일이 문화적 장치로 작동하는 점에 주목한다.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논의는 주체의 본질적인 속성이나 타고난 본성을 갖지 않는 젠더 주체의 구성 양상을 설명하고 작품 속에서 그 제반 양상을 읽어내는데 효용성이 있다¹⁾. 또한 버틀러는 젠더 정체성을 반복된 행위의 수행성의 결과물이며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융의 원형이론은 외적 인격이 사회문화적 소통장치인 패션이라는 기표로 표현되며, 내적 무의식은 개인의 정체성을 지배하는 매개체가 된다.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의식과 개인 무의식(Personal unconscious),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일정한 양식이자 무의식적 심상이자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는 원형(Archetype)으로 정의하며, 대표적 원형에는 페르소나(Persona), 그림자(Shadow), 아니마와 아니무스(Anima/Animus), 자기(Self)가 있다.

젠더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 페미니즘, 철학 등의 이론을 수용하여 복식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Kwon(2015)은 영화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에 대해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수행적 행위(모방, 행위의 반복, 합체)의 패션이미지와 내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Jung & Yang(2002)는 영화 속 젠더 정체성에 대해 크로스드레싱 관점으로 제3의 성에 대해 유희적, 정치성, 트랙으로 분류하여 성에 국한하여 정의하였다. 영화 속 남성 젠더역전을 다룬 Lee(2010)¹⁾은 자기만족을 위해 젠더역전을 하는 크로스드레서, 성도착으로 역전하는 트랜스 베스트아이트, 비즈니스를 위해 젠더역전을 하는 트랙퀸으로 분류하고,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융의 원형이론을 남성 뷰티스타일 연구에 적용한 Jung & Kwak(2011)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도에 따라

1) 이자영. (2010). 20세기 후반 영화에 나타난 남성젠더 역전의 외모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종류로 분류 분석하였다. 이 외에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마돈나의 뮤직비디오 텍스트를 분석한 Kim & Yang(2002)²⁾와 셰익스피어 희극에서 복장전환을 다룬 Kim(2002), TV드라마에 나타난 남성복의 성 이미지를 분석한 Yoon(2003) 등의 연구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젠더전환자의 변화과정에서 표현되는 패션스타일을 사회 문화학, 패션학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매체로서의 패션에 대한 가치와 방향성, 역할을 가늠하고, 젠더정체성에 대해 보다 관용적 미적인 패션 태도를 견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젠더 정체성의 전환 과정이 영화 의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세계적인 작품성을 인정받은 소설원작 영화 <The Danish Girl, 2015>으로 선정하였다. 이 작품은 제73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음악상(알렉상드르 데사플레) 3개 부문 노미네이트 및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미술상, 의상상까지 주요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등 작품성과 예술성, 대중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품이다. 의상감독인 파코 델가도(Paco Delgado)는 다수 작품에서 의상상을 수상한 디자이너이다 ("Naver movie", 2015).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작품연구로 진행하며, 트랜스젠더 정체성 전환 과정이 시각 기호인 패션스타일로 나타나는 수행적 행위를 판단하는 연구 분석틀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정체성 이론을, 기의로서 젠더 정체성의 내적 의미는 융의 원형이론을 적용하여 복장전환의 심도깊게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1] Research process



2) 김주영, 양숙희. (2002). 마돈나 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복식문화연구. 10(1), pp.60-75.

2. 이론적 배경

2.1.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수행성 이론

‘수행성’은 1950년대 영국의 언어 철학자 A.J.오스틴의 화용론에서 유래하였으며, 주디스 버틀러에 의하면 수행적 행위는 ‘언어의 발화와 더불어 특정 형태의 행위를 의례화 해서 반복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적 체제의 효과’로 정의한다. 행위의 반복 속에 발생하는 끝없는 재 의미화를 뜻하며, 패러디의 정치적 담론을 재의미화하는 복합적인 작동 방식과 생산력에 관한 것이다(Butler, 1996/2007, p.155-160).³⁾ 버틀러는 젠더 정체성을 패러디, 반복 복종, 수행적, 우울증적 정체성으로 분류한다.

패러디적 정체성은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를 허무는 기원 없는 모방으로 정의한다(Butler, 1998/2008, p.134). 패러디의 기원이 원본에 대한 풍자와 희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방적 장치이므로 젠더 패러디는 그 패러디적 정체성이 원본없는 모방물이며 모방물의 위치를 차지하는 산물이다. 패러디의 대상이 원본이라는 가상의 대상을 모방하므로 모방에 대한 모방이며, 원본의 패러디적 반복은 자연적, 원래적이라는 생각을 전복한다. 환상의 환상으로 구성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며 패러디적 모방론은 이성애가 동성애에 대한 원본이라는 기존의 성 규범을 전도한 이론적 장치로 설명한다.

수행적 정체성은 고도의 규제적 틀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행위들인 동시에 반복된 몸의 양식화를 의미한다. 즉, 수행적 행위의 양식화된 반복이라는 젠더 효과는 몸의 양식화를 통해 생산된다는 입장이다. 젠더는 제스처, 동작 걸음걸이 등 몸의 연극적 행위를 통해 몸위에 내적 깊이를 가진 환상을 생산하고 규제적인 체제의 반복 효과이며, 그 질서를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구성적인 불안정성(constitutive instability)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으로서 ‘젠더의 탈-안정화’로 해석한다.

반복 복종으로서의 정체성은 권력의 역설과 양가 성에 관한 것으로 버틀러는 알튀세의 호명 이론과 푸코의 권력 이론을 결합하여 논의

3) 주디스버틀러. (1998/2008). 앞의 책.p.134
주디스버틀러. (1998/2008). 앞의 책.p.134

한다(Butler,1996/2008, p.207). 젠더 정체성은 이전부터 주체 내부에 심리적 양식으로 들어와 있으며, 무의식적 집착이 일어나는 환승점인 자율 주체가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 전복할 수 있는 내적 저항성이나 내면화된 권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울증적 정체성은 선취된 금지, 혹은 거부된 동일시로 상실한 대상의 실체를 알 수 없어 극복이 불가능한 동일시이다(Butler, 1996/2008. p.229). 원천적으로 배제된 동성애가 나의 젠더를 구성한다는 논리구조를 가진 우울증적 정체성에 대해 버틀러는 주체의 구성과정으로서 반-은유적인 예고가 젠더화된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젠더 교차적 동일시를 통해 젠더를 안정되게 만드는 일단의 우울증적 합체 환상을 알레고리로 보여주는 사례가 드랙이며, 드랙은 이성애의 우울증을 알레고리로 표현한다.

2.2 젠더 정체성과 패션스타일

의학적으로 ‘젠더’라는 용어는 1950년대 중반 존 모니(John Money)와 존스 홉킨스 병원의 동료들의 트랜스 섹슈얼 시술의 프로토콜에 처음 등장하였으며,⁴⁾ 이 시기부터 ‘젠더’는 내부의 성적 정체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연행을 의미하는 의학적 담론으로 처음 소개되었다(Denzin 1990).⁵⁾ 젠더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대로, 사회구성주의 페미니스트인 오클리(Ann Oakley)가 저서 『Sex, Gender and Society(1976)』에서 처음 언급하였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본질적인 차이로 보기보다 사회 속에서 규정된 속성임을 밝혀내고자 한다.⁶⁾ 젠더 정체성은 페미니즘과 19세기 이후 여러 하위 문화와 사회공동체의 증식, 1990년대 중반의 동성애 해방 운동 등의 영향으로 변화 발전되었다(Jung & Yang, 2002).

버틀러에 의하면 젠더는 규범 반복을 통해 작동되는 구성물이며 저항적인 동시에 다양한

4) 이강원. (2013). 젠더와 트랜스 섹슈얼리즘.비교문화연구. 19(1). 5-39.

5) Denzin Norman K.(1990) Harold and Agnes: A Feminist Narrative Undoing. Sociological Theory .8(2). 198-216

6) 허예은. (2017). 한국의 현대 패션과 젠더 가치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맥에서 새로워지는 반복이라는 역설적 동일시의 관점을 유지한다. 이는 영화 및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패션 스타일들이 젠더 정체성의 수행적 구성물이며 모방의 환상적 실체이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규범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에드워드 W. 사이드(Edward W. Said)는 ‘정체성이란 고정된 장소나 변치 않는 물건이라기보다 일종의 흐름, 흘러가는 물줄기’라고 정의하며⁷⁾, 고프먼(Goffman,1976)의 연구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자신의 행위를 어느 정도 구성하는 상황 하에서 어떤 독자성(獨自性)을 표현·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상 자아와 사실 자아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적인 것으로서 정체성을 설명한다.⁸⁾(“정체성”,2006)

버틀러가 젠더 주체의 형성에서 중시하는 것은 몸과 성 경향이다. 몸은 수행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중요하며, 가변적인 젠더 정체성은 양식화된 젠더표현이나 행위의 양식화된 반복을 통해 설정되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젠더 정체성은 사회적 인정과 금기로 강요된 수행적 성과물이며 그 내부에 갈등을 일으키는 물화된 위상들이 나타난다⁹⁾ (Butler,1998/2008,p.466). 버틀러가 정의한 젠더 전환자 분류에서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는 옷만 바꿔 입는 트랜스 베스트아이트, 심리적 동일시가 수반되는 협의의 트랜스젠더, 의학적 수술을 통해 몸도 이성으로 전환된 트랜스 섹슈얼이 있다. 버틀러가 젠더 정체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트랜스젠더와 드랙 퀸/킹이다. 의학적으로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신체를 다른 성별로 전환한 사람이며, 드랙(Drag)은 쇼비즈니스 개념으로 다른 성(姓)의 복장을 즐겨 입는 복장 전환자, 즉, 크로스 드레서(Cross-dresser) 젠더 범주에 포함된다.¹⁰⁾ 드랙은 신체구조를 과장되게 과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것’의 환상적 위상을 드러내는데 이는 젠더 규범을 탈 자연화하고 재관념화 하는데 기여하는 패러디 적 정체성이기 때

문이다(Butler,1996/2008, p.148).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표인 복장 전환에 대해 연구한 Lee(2010)는 남성 젠더 변환자와 남성 젠더 교차자로 분류하며, 남성 젠더 교차자의 크로스 드레서는 일상생활의 심리적 압박으로의 일탈과 완벽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 여성의 외모를 차용하며, 트랜스 베스트아이트는 성역할에 따른 고정된 사회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겪는 심리적 압박의 탈피와 성적만족을 위해 외모를 차용하고, 드랙퀸은 자신의 본래의 남성 정체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여성적인 외모를 차용하여 이분법적 성 역할을 더욱 고착한다고 한다. Jung & Yang(2002)¹¹⁾는 크로스드레싱을 본래의 성을 폐하고 완전히 이성의복장으로 가장하는 경우와 양성의 특성이 소멸된 ‘제3의 성’인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3. 융(C.G. Jung)의 Anima/Animus 원형

스위스의 정신 분석학자 C. G. Jung(1967)이 분석 심리학에서 사용한 용어인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는 ‘영혼, 정신’을 의미한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페르소나, 원형, 자기, 그림자 등의 개념들은 분석 심리학의 주요 개념들이며¹²⁾, 아니무스와 아니마 개념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관찰한 보편적 양성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융은 인간의 인격 전체를 정신으로 명명하며, 정신을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무의식으로 구별한다.

원형(Archetype)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정신의 구조적인 면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경향을 지칭하며, 원형적 조건들은 체험을 통해서 상(Image)으로 표현된다. 타고난 심리적 행동 유형으로서, 본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활성화될 경우 행동과 정서로 나타난다.¹³⁾ 내적 인격은 개인 무의식에 속하는 개념으로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자아의 무의식을 이어주는 매개자로서 내적 인격은 남성 속의 여성성을 아니마(Anima), 여성 속의 아니무스(Animus)로 명명하며 원형적 요소를

7) 에드워드 사이드·다니엘 바렌보임. (2016). 평행과 역설. (노승림 역), 서울:마티. p.24.

8) 정체성. (2006.1.30.). 문학비평용어사전

9) 주디스버틀러, (1998/2008), 앞의책 P466

10) 오지민. 장혜원. (2017). 뮤지컬 헤드워, 킹키부츠에 나타나는 젠더의 정체성.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12(3). 63~79

11) 정세희, 양숙희,(2002). 1930-1990년대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2). 대한 가정학회. Vol.40, NO.6. 21-37

12) 아니마와 아니무스. (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13) 원형. 정신분석 용어사전

포괄하고 있다.

아니마는 남성의 정신에 내재된 여성성의 원형적 심상을, 아니무스는 여성의 정신에 내재된 남성성의 원형적 심상에 해당된다(“Anima and Animus”, 2006). 아니무스(Geist)와 아니마(Seele)는 그리스어, 라틴어, 아랍어의 뜻이 ‘움직이는 공기’이며, 라틴어로 바람, 정신, 혼이라는 의미(C.G.Jung, 1967)¹⁴⁾이다. 요약하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무의식의 내적인격이다.¹⁵⁾ 자아는 의식적 마음의 구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아니마를 의식이나 페르소나에서 배제된 인간의 특질로 규정하는 용의 견해에 의하면, 아니마는 의식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내적 인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억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내적 인격으로서의 아니마는 개인에게 암시적인 힘으로 의식에 침입한다.

페르소나(Persona)는 고대에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이 쓰는 사회적 가면 또는 사회적 얼굴을 의미한다. 인간 행태의 보편적이며 원초적 조건인 원형으로 구성된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요구되는 태도, 생각, 행동규범, 역할을 분석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 또는 외적 인격이라고 한다(Lee, 2001). 페르소나는 사회가 규정하는 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개인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기 성격의 한 측면을 페르소나로 강조하기도 하고, 전생애 동안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¹⁶⁾

그림자(Shadow)는 성격의 부정적 부분이나 개인이 숨기고 싶은 불유쾌한 요소들의 총합으로 개인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의미한다.¹⁷⁾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¹⁸⁾은 융 심리학의 중심개념이며, 인간의 인격 전체를 정신이라고 부르고 정신을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무의식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별한다. 집

단무의식은 용이 원시적 이미지라고 부르는 잠재적 이미지의 저장고이다. 용에 의하면 물려 받은 이미지는 세계를 경험하고 반응하는 소질 혹은 잠재적 가능성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자아(Ego)는 1923년 프로이트가 재정의한 용어이며 용의 분석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정체성과 연속성을 느낄 수 있는 원천으로 간주된다. 자아는 프로이트의 자기 표상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 선택되었으며 의식적인 영역에 속하는 성격의 일부이다.¹⁹⁾ ‘자기self’는 그 사람이 지닌 전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인격의 핵심부분이다. ‘자아’가 페르소나를 구분하고 자기로 나아가는 것, 즉, 전체가 되는 것은 자아가 무의식을 적극적으로 의식화함으로써 가능하며, 용은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Individuation)로 정의한다(Lee, 2001).²⁰⁾ 개성화의 목표는 원형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 Einar의 젠더 변환과정(Trans-Gender)에 명시적으로 영향을 준 복장 전환에 대해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이론을, 젠더 변환의 내적 의미는 용의 아니마/아니무스 원형이론으로 파악한다. 영화에서 젠더 디스플레이의 시각 장치인 남성복과 여성복은 젠더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에 타당하며,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이론 중 행위 양식을 패러디적 모방 > 행위의 반복 > 우울증적 합체로 세분화하여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3. 영화 속 패션 스타일의 젠더 정체성 분석

본 장에서는 영화 <The Danish girl, 2015>²¹⁾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의 변환과정을 ‘몸’ 위에 복식을 통해 ‘행위’가 반복되고 ‘담론’적 제스처를 통해 젠더 주체가 재구성, 재의미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몸의 양식화를 생산하는

14) C.G.Jung. (1967). Das Gerundproblem der gegenwartigen Psychologie. Zurich: Rascher Verlag. p.394.

15)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부영. (2006). 앞의 책. p.33

16) 페르소나. (2002. 8. 10). 정신분석용어사전. 서울대상관계정신분석연구소

17) 그림자. (2002. 8. 10). 정신분석용어사전. 서울대상관계정신분석연구소.

18) 집단 무의식. 분석심리학Psychoanalysis/Analytic Psychology]

19) 자아. (2002). 분석심리학. 정신분석용어사전.

20) 이부영. (2001). 아니마와 아니무스. 서울: 한길사. p.33

21) 네이버 영화. 대니쉬 걸. (2015). Retrived from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1787>

수행적 언어인 ‘의상’의 조형성인 패션스타일을 통해 젠더 정체성 변환과정을 분석한다. 일시적 젠더 교차자였던 Einar는 일시적으로 다른 젠더의 역할을 맡는 젠더 교차 중 크로스 드레서(Cross-dresser)였다가 젠더 정체성의 변화를 인지하고 영구적으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갖기 위해 젠더 변환하는 트랜스 섹슈얼(Transsexual)이다.

[Table 2] Einar Wegener's Identity(Male)



Table 2의 <Fig. 1>, < Fig. 2>, <Fig. 3>은 덴마크의 풍경 화가인 Einar의 전형적인 남성성을 표현하는 의상이다. 1890년대부터 유행한 것이 높은 클레릭 셔츠와 모직 소재의 핀 스트라이프 슈트와 패턴이 화려한 넥타이, 베스트로 코디네이션하여 1920년대의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포멀한 세련된 취향을 나타낸다. <Fig. 4>는 젠더 정체성의 변화를 인지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과도기적 의상으로 골드색상의 허리선이 잘록하게 들어간 스포츠형 재킷과 와이드 팬츠에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보라색 체크스카프를 코디네이션하여 여성적인 실루엣이 드러나는 남성복을 착용한다. 이하의 분석은 Table 3에서 정리하였다.

3.1. 모방성; 패러디적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행동과 수행의 조건에 달려있다. 젠더 정체성은 반복된 인용의 실천 결과이며 실제적인 수행의 행위작인으로 구성된다. 패러디적 정체성은 본질론적 여성성을 부정하고 끊임없는 재의미화와 재문맥화로 열린 유동적 정체성을 논의한다. 즉, 복사본의 모방임을 보여주면서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를 허무는 모방 구조는 원본도 복사본도 원본에 대한 이상적 개념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정체성은 없다. 패러디를 통한 모방은 ‘과생적이고 모방적인 실패한 모방본으로서의 젠더’와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배

치된 젠더’로 재통합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패러디는 젠더를 재배치 재생산하는 수행적 장치로 작동한다.



















영화에서 주인공 Einar는 아내의 일시적 모델 제안으로 우연히 착용한 복장 전환에 즐거움을 인식하게 된다. 무대분장실에서 가져온 여성 의상을 착용하고 파티에 참석하는 모습 등은 드랙의 수행적 행위에 해당된다. 드랙은 남녀의 젠더 이분법이 해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랙의 전복성은 지배적 젠더가 만든 이성애의 원본성을 반박하는 모방 구조 속에 드러난다.²²⁾

패러디적 모방에서 Einar의 의상과 분장은 풍자와 희화를 목적으로 한 모방적 수사 장치이다. Einar의 젠더는 남성이며 아내(게르다)의 모델대역요청으로 착용한 드레스와 스타킹을 통해 젠더의 변화 즉, 남성 속의 여성성(Anima)을 발견하게 된다. <Fig. 5>에서 베이지색 발레드레스와 스타킹, 자수가 놓인 구두를 신고 제스처를 취하는 행위는 모델의 복사본에 대한 모방으로 유희와 희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실크 스타킹을 신은 자신의 다리를 응시하는 장면은 남성적 관음증의 표현이며 자신 안의 여성성이 드러나는 순간의 행위 작업이다. <Fig. 6>에서 얼굴에 직접 메이크업을 하는 주체(Einar)의 행위는 원본인 여성의 이상적인 개념을 패러디 하는 모방 행위나 <Fig. 7>에서 1920년대 유행한 마셜웨이브의 가발과 톤 다운된 드레스에 파란색 가운을 걸치고 파티에 참석하는 행위는 원본인 여성의 속성을 모방해서 얻어진 결과이다. 버틀러에 의하면 젠더 패러디는 그 패러디적 정체성이 모방하는 원본의 기원이나 우월성을 부인한다. <Fig. 8>, <Fig. 9>에서 Einar는 아내의 모델 역을 재현하는 데, 이는 이전의 모델 대역이 아닌 새롭게 창조된 복사본인 자신을 모방하는 해체적 수행을 구성하고 있다. 핀 스트라이프 팬츠와 베스트, 클레릭 셔츠를 입은 남성이 여성스러운 표정과 제스처를 취하거나 (Fig.8), 1920년대 패션 스타일인 베이지색 쉬폰 원피스와 클로쉐, 쉬폰 스카프를 두르고 꽃을 드는 등 원본인 여성보다 더 여성스러운 행

22) Judith Butler,(1998).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125. 재인용. 조현준. (2008). 앞의 책.p.148.

위를 수행함으로써 모방물의 위치를 재생산한다(Fig.9). <Fig. 10> 에서 게르다의 아르누보 양식 작품 앞에서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젠더 정체성을 고민하는 장면도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를 허무는 패러디적 모방 구조 속에 젠더 교차적 동일시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Table 3] The change of fashion style according to the gender transformation

1.Parody Identity		
 Fig. 5. Einar Wegwerner	 Fig. 6. Makeup with Gerda	 Fig. 7. Attend a party
 Fig. 8. Copy model Pose	 Fig. 9. Imitate model pose	 Fig. 10.Trace model gesture
2. Repeated performance		
 Fig. 11. Crossdresser	 Fig. 12. Crossdresser	 Fig. 13. Crossdresser
 Fig. 14. Crossdresser	 Fig. 15. Crossdresser	 Fig. 16. Crossdresser
3. Depressive identification		
 Fig. 17. Lily Elbe act the part to women	 Fig. 18. Lily Elbe in department	 Fig. 19. Lily Elbe write one's diary
 Fig. 20. Lily Elbe determine operation	 Fig. 21. Lily Elbe in hospital	 Fig. 22. Lily Elbe being a woman

3.2. 행위의 반복, 수행적 정체성

버틀러에게 수행성은 ‘시간을 통해 행위의 양식화된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주디스 버틀러, 1998/2008, p.197).²³⁾ 몸은 권력의 효과이고, 몸으로 체현된 주체성은 담론의 내부에 있다. 또한 몸의 수행성을 통해 주체를 상실하는 과정이며, 젠더 정체성은 몸의 양식을 통해 물질화된 젠더는 어떤 본질도 상징하지 않는 이차적 구성물이고 문화적 허구이

다.²⁴⁾ 나아가 몸, 행위, 규제적 틀의 반복을 통해 재의미화가 진행된다. <Fig. 11>에서 가르손느 스타일의 회색 코트와 깃털 달린 클로쉐와 벨벳 소재 긴 장갑, 손가방 등으로 1920년대 전형적인 여성의 외적 행위를 반복하거나 <Fig. 12>에서 흰색 레이스가 달린 파란색 원피스를 착용하고 조신하게 앉아 헨릭과 대화하는 장면, <Fig. 13>에서 Einar 스스로 구입한 회색 원피스와 와인 색의 점퍼스커트를 착용하거나 <Fig. 15>의 꽃무늬 기모노 스타일 가운과 핑크색의 가르손느 원피스를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장면 등은 Einar의 젠더 정체성이 고정적이거나 일시적이기보다는 가변적이고 반복적인 수행 행위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적 행위의 반복은 젠더가 안정되거나 고정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재의미화되는 이행기로 볼 수 있다.

행위의 반복은 반복 속에 생성되는 의미의 재 전유를 통해 새로운 의미화와 저항성의 가능성을 보인다.²⁵⁾ <Fig. 14>에서 어릴 적 동성애적 호기심을 공유했던 한스의 방문에 자신을 ‘릴리’로 호명하며 대화하는 장면에서 노란색의 원피스와 머물러는 주체(남성으로서의 Einar)를 전복하는 수행 장치이다.

Einar는 릴리로 호명되는 권력의 담론적 제스처를 모방하면서 반복된 인용을 통해 젠더화된 주체를 구성한다. 고개를 살짝 기울여 아내를 바라보거나 다리를 다소곳이 모아서 앉는 등 여성스러운 제스처와 젠더의 수행성은 존재론적 진위보다 사회문화적 담론에서 수용 가능한 의미를 생산하며 행위 속에서 가변적이고 일시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몸, 행위, 제스처의 표현은 수행성의 관점에서 진짜 여성은 없고 행위만 반복된 규범으로 볼 수 있다. <Fig. 16>에서 엠브로이더리(Embroidery) 레이스 자수의 그린 색 벨벳 가운과 여행용 가방을 들고 조신하게 걷는 Einar는 성전환 수술을 하면 진정한 자아인 여성이 된다는 희망에 찬 표정으로 병원을 방문한다. 이처럼 Einar의 물질적인 몸(남성성)은 젠더와 불일치 속에 쇠신되고 수정되고 반복된 일련의 행위(수행성)를 통해 강화된 여성성을 체화하게 된다.

24) 주디스버틀러. (1998/2008). 위의 책.p.193

25) 주디스버틀러. (1998/2008). 위의 책.p.194

23) 주디스버틀러.(1998/2008).위의 책.p.197

3.3. 합체; 우울증적 정체성

버틀러는 트랙을 불안정한 복종을 실현하는 주체로, 자체의 우울증을 안고 있는 이성애의 우울증에 대한 알레고리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Butler, 1996/2008, p.160). 그는 우울증은 '젠더 주체가 형성되는 하나의 매커니즘'이며²⁶⁾(조현준, 2016, p.38) 몸의 자아 즉, 젠더화한 자아를 형성하는 방식이며, 남성 속의 여성, 여성 속의 남성처럼 이중 부정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인격 페르소나(남성적 외모) 사이에 갈등에 대해 주디스 버틀러는 우울증적 동일시로 설명한다. Einar는 남성복을 착용한 자신을 어색해 하며 집에서 아내의 가운을 걸치고 있는 모습과 감정, 생각 등 인지된 자아의 분열이 나타난다. 인격의 불일치로 인해 Einar가 보인 내적인 태도는 코피가 생리처럼 한 달에 한번씩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직 남성의 외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복장 전환으로 여성으로 인지하는 Einar의 의식(사고)은 여성과 동일시하나 완전하지 않기에 우울증적 동일시로 표현된다.

Einar의 젠더는 완전히 여성이 되지 못한 젠더 변환의 이행기에 있으며 그의 자아는 금지되거나 배제된 사랑의 대상(성적 경향)이 불완전하게 합체된 주체이다. 영화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Fig. 17>부터 <Fig. 21>은 상실한 애정의 대상(남성성)을 불완전하게 애고로 합체하면서 젠더정체성을 형성하는 변환기이며, 매개된 자아가 자기 복종인 동시에 내면의 젠더 자아로 변화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Einar의 우울증은 질병이라기 보다는 젠더 주체의 구성 과정에 가깝다. 우울증의 내면화는 상실된 대상을 떠나 보내려는 거부의 작동 기제 중 하나이다. <Fig. 18>은 새로운 젠더로 전환된 Einar의 직장인 백화점 향수 판매원으로 출근하거나 동료 화가인 헨릭을 만나는 장면이다. 마셜 웨이브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1920년대 유행한 모피 트리밍 코트, 털 머플러, 화려한 장식품이 달린 모자 등은 불안정한 자아를 의복을 통해 동일시하여 상실한 타자(남성성)와의 우울증적 합체를 표현한다. <Fig. 19>에서도 백화점 유니폼인 검정색 원피스와 아이보리색 스카프를 착용하고 다소곳

한 제스처와 여성스러운 표정, 언어 등으로 고객을 대하는 규범적 자아로서의 젠더를 수행한다. <Fig. 20>에서 아내에게 선물했던 황금색 스카프를 항상 두르고 있는 장면은 상실한 타자를 상상적으로 합체하는 과정이자 타자에 의해 붕괴된 자아이며 부인된 애착(Disavowed attachment)에 해당된다. 검정색 코트 위에 스카프를 두르고 일기를 쓰는 행위를 통해 정체성의 변화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려는 점을 강조하며 아내에게 어필하는 표정과 제스처에서 여성스러움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Fig. 20>에서 화려한 꽃무늬의 시스루 검정색 원피스와 머플러를 두른 채 2차 수술을 결심하고 이를 아내에게 전하는 장면은 1차 수술을 통해 획득된 자아를 향해 방향을 선회하는 심리적 갈등의 순간이다. <Fig. 21>은 2차 수술을 기다리는 병원에서 아내의 골드 색상 V넥 원피스와 스카프를 두른 Einar는 성전환 수술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아내에게 표현하기도 하며 완전한 타아의 상실에 대한 울음을 터트리며 스스로를 애도하는 전환기이자 자기복종을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런 전환은 우울증에서는 외부 대상이 내면의 젠더 자아로 변화되는 순간을 의미한다.²⁷⁾ <Fig. 22>은 2차 수술 실패로 죽음을 앞둔 Einar의 여성성이 완전히 획득된 장면이다. 아내 게르나의 스카프를 목을 감싸고 핑크색 자카드 무늬의 가운을 걸치고 생의 마지막을 말하는 Einar는 꿈에서 엄마 품에 자신이 안겨 있다고 한다. Einar의 무의식에서 자신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은 심혼상을 드러낸다. 꿈은 무의식의 표현이며 Einar에게 어머니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든 모체이자 자신에게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아내인 베게너에 대한 심혼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우울증적 합체는 상실에 대한 우울증적 반응을 표시하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자아를 발생시키고 또 재 이중화하는 장치로 의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젠더 탈-안정화로 해석되는 수행성은 이성애에 대한 우울증적 퍼포먼스 행위가 의상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텍스트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26) 조현준, (2016) . 젠더트러블. 서울:커뮤니케이션 북스. p.38

27) 주디스버틀러. (1998/2008). 앞의 책. p. 247

4. 트랜스 젠더 패션 스타일의 젠더 상징성

본 장에서는 주인공 Einar의 젠더 정체성의 전환 과정이 패션스타일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므로 융의 원형 이론에 대입하여 Einar의 젠더 정체성변화에 따른 패션스타일의 내재적 상징성을 분석하였다(Table 4).

4.1. 패러디적 실천으로서 Cross-dresser

크로스 드레서는 '취미로 여성 옷 입을 뿐 성·사회생활 잘 꾸려가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성의 복장을 즐기는 사람'을 의미한다("크로스드레서", 네이버 사전).²⁸⁾ 융의 원형이론에서는 남성 속의 여성성을 아니마로 정의하며 자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내적 의식을 의미한다. Simmel(as cited in Kim,2013)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며 패션은 개인을 차별화시키면서 경쟁과 상호 의식을 강화시키거나 역설적으로 공유된 즐거움에 동조하고자 하는 욕망을 고취시킨다고 하였다. Freud(as cited in Kim, 2013)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도착적인 성적 이미지로 트랜스 베스티즘(Transvestism), 크로스드레싱(Cross dressing), 트랜스 섹슈얼(Transsexual)등을 언급한다. 성에 대한 정체성은 정상이나 이성의 옷 자체가 자극 대상물로서 이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고 설명한다.²⁹⁾

Einar가 착용한 여성복은 젠더 정체성의 표현이자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로 작용한다. 즉, 남성화가로서 그의 명성과 입지를 보여주는 스트라이프 슈트와 넥타이가 집단 무의식의 남성관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자기 안의 여성인 아니마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착용한 여성복은 복장 전환을 통한 젠더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는 페르소나 아이탬이다.

Einar는 기혼자로 전형적인 남성이며 촉망받는 풍경화가이다. Einar의 스타일은 1920년대 유행한 직선적인 스트라이프 재킷과 팬츠, 스탠드 분이 높은 화이트 칼라 셔츠를 즐겨 착용하고 패턴이 화려한 넥타이로 화가로서의 미적 감각을 표현한다. 아내의 모델 부탁으로 걸친 발레 드레스와 스타킹, 메이크업이나 이후 '릴리'라는 가상의 여인으로 분장실 옷을 빌려 입고 파티에 참석하는 장면, 집에서 아내의

가운과 잠옷을 입고 있는 장면, 여성 복장을 하고 동료 화가인 헨릭을 만나는 장면 등의 수행성은 크로스드레싱인 취미의 일환으로 퍼포먼스적인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inar는 일탈과 재미, 변화를 위한 패러디적 실천으로서 크로스 드레스를 수행하며 내재된 아니마를 일깨우는 매개체로 작동한다. 스타킹을 신은 자신의 다리를 보다가 뭔가를 깨닫는 듯한 장면이나 분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대상화하여 바라보면서 여성성을 소환하는 장면 등은 패러디적 모방인 크로스드레싱이 자아와 타자를 전복시키고 젠더의 새로운 배치를 유도하는 장치이다.

4.2. 아니마 전환의 매개장치로서 Trans-gender

융은 자기란 그 사람이 지닌 전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삶의 목표라고 한다.³⁰⁾ 자아가 페르소나를 구분하고 이 전체 정신의 중심인 자기로 향해 가도록 무의식을 적극적으로 의식화하는 것을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라고 정의한다.³¹⁾ 융은 가상으로서의 페르소나의 비(非)본질성과 페르소나와 자아 동일시로 말미암은 병적인 폐해를 강조한다.³²⁾ 의식된 관계는 자각된 관계이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한 토대 위에서 맺는 관계를 뜻한다.

버틀러는 트랜스젠더를 심리적 동일시가 수반된다고 하였다. 크로스드레싱과 달리 트랜스젠더는 개인의 무의식이 표면에 드러나는 의식화된 내면으로 볼 수 있다. 즉, Einar는 크로스드레싱의 반복적 수행을 통해 남성 속의 여성성을 강화하는 내면의 권력 장치가 작동되며, 몸의 반복적인 수행적 행위를 통해 젠더의 탈안정화로 진입하고 재의미화가 진행된다. 또한 의식적 반복적인 복장 전환은 그의 남성 페르소나가 아니마인 여성으로 심리적 동일시로 젠더 변환 되는 매개 장치로 작동한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몸이 공적 영역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 디스플레이의 시각적 이미지와 젠더-관련 행동, 젠더리즘(Genderism)에 대해 연구한 고프만³³⁾

28) 크로스드레서. (2018.01.03.) 네이버국어사전.

29) 김민자. (2013).복식미학. 서울:교문사.p.463.

30) 이부영. (1998). 분석심리학; C.G.Jung의 인간 심성론. 서울: 일조각. p.33

31) 이부영. (1998). 위의 책. pp.112-135

32) 이부영(1998). 위의 책. pp.46-47

은미디어에서여성의묘사를몸을낮추거나수줍어하는표정과머리를숙이는것등수동적이고소극적인제스처를통해비언어적메시지를전달한다(Goffman, 1976, pp.69-77)고 한다. Einar는 아내의 작품과 같은 포즈와 표정을 하고 여성임을 의식화하는 장면, 옛 친구인 한스를 첫대면하는 거실에서 릴리로 분장한 모습, 성전환 수술 방법을 찾기 위해 방문한 도서관에서의 복장, 병원 방문 시 착용한 그린색 코트 등은 수행성 원본을 전복하여 내적 본질로 향하는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매개 장치이다. 또한 용이 병적 폐해로 지적인 자아 동일시는 릴리를 보낼 것을 요구하는 아내와의 갈등에서 두드러지며 이를 거부하고 자아가 전환되어 재생산된 자기를 찾기 위한 Einar의 외적 표현(의상)으로 나타난다.

4.3. 완전한 페르소나로 전환된 Trans-sexual

Jung(1967)은 개성화(Individuation)를 개인이 정체성과 연속성을 느낄 수 있는 원천이며, 자아가 페르소나를 구분하고 자기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원형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를 구현하는 것이 개성화의 목표라는 점에서 Einar의 젠더 전환은 재생산된 개성화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완전한 여성으로의 삶을 꿈꾸는 릴리(Einar)의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는 여성이며 자기 자신인 것이다. 1차 수술 이후 Einar의 외적 인격은 여성으로 환원되었다. 즉, 용이 말한 ‘자아’에서 ‘자기’로 개성화 되었으며 이는 여성적인 실루엣의 의상과 헤어스타일, 제스처, 언어 등을 통해 구현된다. 실제 여성보다 더 여성다운 면모를 보이는 Einar의 젠더 정체성은 완전한 자기실현/개성화로 완성되고 있다. Einar의 여성복장은 제의 미화된 ‘자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버틀러가 정의한 트랜스 섹슈얼은 여성으로서의 삶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한 사람으로 정신적인 면은 정상적이며, 진정한 자아실현을 완성하고 자신의 정신세계에 적합한 매개체이기에 사회적 규범은 보수적이다. 34) 1차 수술을 성공하여 릴리로 재탄생한

Einar는 여성으로서의 규범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 백화점 향수 판매원으로 취직한다. 화가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Einar(릴리)는 자아실현을 완성하고 정신세계와 일치되는 외모와 행동을 실천한다. 판매원으로서 프랑스식 향수 사용법을 알려주며 고객을 설득하거나 동료들과의 우애를 다지는 모습, 일기를 쓰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모습 등은 그림자로 존재하던 억압된 자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로 재탄생한 자기를 향해 정체성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로 억압된 자아는 사회가 규정한 집단무의식에 따라 페르소나(외적인격)로 행동하길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면 젠더 정체성의 일치로 전형적인 여성/남성으로 자기실현을 하게 된다. 2차 수술 후 아내와의 대화 중 꿈에서 자신이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이며 릴리로 불리웠다는 마지막 대사는 그동안 젠더 정체성의 혼란으로 억압된 자아 이자 그림자(Shadow)였던 혼란이 해소되었으며, 이는 아내가 친구 한스와 찾아간 그의 고향 언덕에서 둘의 상징적 연결고리인 스카프가 자유롭게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장면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한 합체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Einar의 트랜스섹슈얼은 스스로 내재되어 있던 여성의 몸/정신에 대한 환상이 실현되었고 스스로를 가꾸고 유지해 가는 능동적인 의미의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Table 4] The change of fashion style according to the gender transformation

C. G. Jung's theory			
Buttler's theory	Male (Anima) ⇨	Ego (Male/Female) ⇨	Female (Animus)
Parody 패러디의 정체성 - 영화와 역사상의 재연을 배우는 50대부부 - 풍자적 패러디 Repeated Performance 행위의 반복적 수행 - 다양한 제스처를 반복 연출을 통해 패러디와 행동의 이행 Depressive Identification 무용론적 정체 - 젠더 인물의 이행기 - 젠더 무용론적 정체			
Gender Fashion style	Cross-dresser - 패러디의 삶 - 영화와 재연의 50대부부 - 자아의 인격의 전체 풍토	Trans-gender - 아내의 전환에 따른 양자 - 젠더의 둘 안착으로 재의미화 진행	Trans-sexual - 재생산된 페르소나에 목표 달성 - 완전한 개성화(정체) - 능동적 젠더 실현

33) Goffman, E. (1976). Gender display. Studies in Anthropology of visual communication. 3. pp.69-77.

34) 이정후, 양숙희. (1997). 크로스드레싱에 관한 연구. 한국복

5. 결론

패션은 자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시대의 사회문화상을 읽는 명시적 텍스트이다 (Kim, 2018). 젠더 정체성은 여성/남성의 패션스타일을 통해 일관된 시각장치로서 규범적으로 정의되고, 교차되거나 전환된 젠더는 금기시 /부정적 이미지로 여겨졌다. 현대사회에서 젠더는 평등과 존중의 의미로 전개되고 있으며 패션스타일에서 사회문화적 젠더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젠더 전환의 상징성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스타일에서 표현되는 젠더 수행 양상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젠더전환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영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표상과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패션스타일을 통해 표현된 젠더 정체성은 첫째, 패러디적 모방은 젠더를 재배치 재생산하는 수행적 장치로 작동한다. Einar의 패러디적 모방은 유희로 시작되었으나 젠더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전환하게 만드는 재배치된 문화 장치로 볼 수 있다. 둘째, 행위의 반복을 통한 수행성은 '시간을 통해 행위의 양식화된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Einar는 릴리로 호명되는 권력의 담론적 제스처를 모방하면서 반복된 복장인용을 통해 행위만 반복된 규범으로 젠더화된 주체를 구성하고 강화된 여성성을 체화하게 된다. 셋째, 우울증적 정체성의 합체는 젠더 주체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다. 젠더 탈-안정화로 해석되는 수행성은 이성애에 대한 우울증적 퍼포먼스 행위가 의상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텍스트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패션스타일은 젠더 전환 이행 과정을 파악하는 시각적 문화적 장치이자 외적 인격(페르소나)를 표현하는 텍스트이다. 첫째, 패러디적 실천인 Cross-dresser는 퍼포먼스 적 반복 행위로 유희적 자아와 타자를 전복시키고 젠더의 새로운 배치를 유도하는 장치이다. Einar는 일탈과 재미, 변화를 위한 패러디적 실천인 크로스 드레스를 수행하며 무의식에 내재된 아니마를 일깨우는 매개체로 작동한다. 둘째, 아니마 전환의 매개장치로서 Trans-gender는 의식적 반복적인 복장전환으로 그의 남성 페르소나가 아니마인 여성으로 심리적 동일시되어 젠더 변환의 계기를 마련한다. 즉, 트랜스젠더 복장전

환에서 젠더 규범의 상실은 본질적 정체성을 불안하게 만들고 페르소나의 변화를 요구하는 장치이다. 셋째, 완전한 페르소나로 전환된 Trans-sexual은 새로운 젠더로 새롭게 재생산된 이들이 정상적 심리와 진정한 자아실현을 완성하고 자신의 정신세계에 적합한 외적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Trans-sexual 스타일은 능동적인 젠더정체성의 표현이다.

이처럼 패션 스타일은 양식화된 젠더의 반복적 수행으로 나타난 표현이며, 영화 속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을 수행하는 매개이자 문화적 장치가 된다. 또한 몸은 문화의 장으로서 패션을 사용하여 자연적이고 즐거운 행위가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젠더 정체성과 패션은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영화 프로덕션의 미장센인 패션스타일 표현에 대한 중요성과 영상문화자산으로서 영화제작 프로세스 내 패션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과 영화영상 전문 인력들의 패션 교과목 참여도를 높이는 교육적 측면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민자. (2013). 복식미학. 서울:교문사 .
- 김주영, 양숙희. (2002). 마돈나 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복식문화연구*, 10(1), pp.60-75.
- 김향자. (2018). 이데올로기가 표상된 복식문화 아이콘 연구. *한국민족문화*, 63, pp.157-186.
- 에드워드 사이드., 다니엘 바렌보임.(2016). 평행과 역설, (노승림 역)서울:마티.(원서출판2011)
- 윤지영. (2010). 트렌디 드라마에 나타난 남성 패션의 성 이미지 유형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대구.
- 이강원. (2013). 젠더와 트랜스 섹슈얼리즘. *비교문화연구*, 19(1), pp.5-39.
- 이부영. (1998). 분석심리학:C.G. Jung 의 인간 심성론. 서울:일조각.
- 이부영. (2001). 아니마와 아니무스. 서울:한길사.
- 이수안. (2012). 이미지 문화사회학. 서울:북코리아.
- 이자영. (2010). 20세기 후반 영화에 나타난 남성젠더역전의 외모특성연구.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논문,서울.
- 이정후, 양숙희.(1997). 크로스드레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35. pp.111-134.

- 정세희, 양숙희, (2002). 1930-1990년대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2). *대한 가정 학회지*, 40(6). pp.21-37.
- 조현준. (2016). 젠더 트러블.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주디스 버틀러.(1998).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서울:주문학동네.(원서출판 2008).
- 허예은. (2017). 한국의 현대 패션과 젠더 가치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Butler, J. Bodies that matter. UK:Taylor &Francis.p.125.
- Jung, C.G. (1967). Das Grundproblem der gegenwertigen Psychologie.p.394. Zurich: Rascher Verlag.
- Denzin Norman K.(1990) Harold and Agnes: A Feminist Narrative Undoing. *Sociological Theory*, 8(2). pp.198-216
- Goffman, E. (1976). Gender display. *Studies in Anthropology of visual communication*. 3. pp.69-77.
- 페르조나. (2002. 8. 10.). In 정신분석용어사전. 서울대상관계정신분석연구소. Retrived 2017. 8. 1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5841&cid=48639&categoryId=48639>
- 아니마와 아니무스. (2006. 1. 30). In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원. Retrived 2017. 1. 3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848&cid=41799&categoryId=41800>
- 크로스드레서. (n.d.). In 네이버 국어사전. Retrived 2017. 1. 30 from <http://krdic.naver.com/user.nhn?docid=c4ed5e9c32f1c8d8eafb906dbf4d98c9>
- 정체성. (2006. 1. 30). In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원. Retrived 2017. 1. 3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848&cid=41799&categoryId=41800>
- 원형. (2002.8.10). In 정신분석용어사전. Retrived 2017.8.10.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5836&cid=48639&categoryId=48639>
- The Danish Girl, 2015. Naver. Retrived 2017.01.30 from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1787>